

장흥군청사 부지 임대료 징수 논란

장흥군청사 부지 무상양여를 두고 군과 정부(기획재정부)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일선 지자체가 위탁관리해온 국유지 관리권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자산관리공사로 이관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흥군은 청사부지인 장흥읍 건산리 715-11 3필지 6648㎡(국유지)를 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체결(2013년 6월~2018년 6월)에 따라 매년 임대료(6600만원)를 지불하고 있다.

군은 이 청사부지가 당초 일본인(김자성 명의) 소유였으나 1965년 국가(재무부)로 이관하면서 지자체와 정부간에 관련 관리규정에 의거 위탁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당연히 장흥군에 무상양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측은 또한 일본인 소유의 대다수 전국 청사부지 토지가 해당 지자체로 무상양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장흥군만이 무상양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도내 영광군이 지난 2011년 12월에 기

자산관리공사에 연 6600만원 납부... 전국 지자체 중 유일 일본인 소유 땅 국가 귀속하며 등기 사라져 무상양여 난항



장흥군이 정부 소유인 군청사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장흥군청사 전경. <장흥군 제공>

재부로부터 청사부지를 무상양여 받은 사례가 있다.

기록원(대전 정부청사)에 1965년에 당시 일본인 개인소유에서 국가에 관리귀속하는 과정에 등기 관련 근거서류가 없어 무

상양여 할 수 없다며 장흥군이 정식(금액을 주고) 매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를 두고 1965년 9월 일본인 소유 땅에서 국가(당시 재무부)로 귀속하는 과정에 장흥군이 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귀속 시켰는지 아니면 정부 '문서보존기록원'측이 관련서류(등기)를 분실했는지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밝혀 지지 않고 있다.

일선 지자체가 관리해온 모든 국유지는 정부와 지자체간 '위탁관리규정'에 따라 임대료 없이 관리해 오다 지난 2012년 12월 기재부가 자산관리공사에 관리권이 넘어 가면서 사용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열악한 군 재정형편상 50여억원에 달하는 청사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다각적인 경로를 밟아 기재부를 설득, 무상양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청사부지를 국가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지자체는 유일하게 장흥군 한 곳 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전북 소식



남원시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대통령상

지리산 눈꽃 축제 민간 주도 전환... 4억5000만원 아껴

남원시는 지난 3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4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봉어뿔 축제를 탈피한 민간 주도 지리산 눈꽃축제(사진)가 예산을 크게 절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 1위의 영예를 안았다"고 설명했다.

남원시는 이 행사를 민간 주도로 전환한 뒤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와 예술인의 눈 조각품 재능기부 등을 적극적으로 유

도해 4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아꼈다.

또 프로그램을 다양화한 결과 3회째를 맞은 올해 방문객이 2년 전보다 36% 증가한 5만여명으로 늘었고 지역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의 매출도 14억원가량으로 증가했다.

눈꽃축제는 적설량이 많은 해발 500~600m의 남원 운봉읍 허브밸리에서 해마다 여는 자연체험형 힐링축제로 작년에는 한국관광공사가 4대 눈꽃축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남원=정규섭기자 jgs@

'천사벽화거리' 여수의 새로운 관광 명소 부상

고소동 1004m 106점 전시

전국서 잇단 벤치마킹 행렬

여수시 고소동 '천사벽화거리'가 전국 주민자치센터의 사례조사 대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여수시는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 마을 특화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해 전망이 좋은 고지대의 장점을 살려 고소동 일원에 벽화거리를 조성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억5000여 만원을 들여 7단계에 걸쳐 고소동 일원 골목 7개 구간 1004m 거리에 모두 160여점의 벽화를 그렸다. 주변에 진남관, 대첩비각 등의 유적·유물과 이순신광장, 해양공원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여수의 아름다운 야경을 관망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쇠퇴해 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 모델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성금을 직접 모금하는 등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고소천사벽화거리는 오래된 항구도시 고지대에 있어 아름다운 여수의 쪽빛 바다와 붉은빛 일몰을 관람할 수 있는 전망지



여수시 고소동 '천사벽화거리'가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관광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전국 최초의 해상케이블카와 돌산대교, 장군도의 야경, 국보 304호 진남관, 여수 밤바다, 여수항의 노을 등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전국에서 벤치마킹 행렬이 잇따르고 있으며, 오는 12월에도 충남 논산 성동면 주민자치위원회, 경남 남해군 이동면 주민자치위원회, 경기도 연천군 주민자치위원회장과 읍·면장단, 충남 홍성군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이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여수시의 한 관계자는 "해양에서 바라본 고소동 일원은 고지대에 있어 전망대로서의 활용가치가 높다"며 "무엇보다 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오래된 골목길의 열악한 환경을 시각적으로 개선해 벽화거리를 관광명소로 바꿨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길이 3m 하늘타리 발견

순창 회문산에서 길이 3m가 넘는 대형 하늘타리(하늘수박·사진)가 발견됐다. 당노병 치료제로 알려진 하늘타리는 1m 남짓한 것은 국내에서 자주 발견됐지만 3m가 넘는 크기의 하늘타리가 발견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지난 30일 손남수(57·광주시 북구 문흥동)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순창 회문산 등산 도중 이 하늘타리를 발견하고, 이를 동안 캐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이 하늘타리는 길게 펼쳤을 때 3m가 넘고, 3개의 긴 줄기로 뻗어 나가 있는 등 초대형 크기여서 수십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하늘타리는 부작용이 없는 항암제로 알려져 있으며, 뿌리는 고무마처럼 굵은 게 특징이며 당노병 등의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정읍교육청 '진로&학습 캠프' 성료

장성 백양사에서 80명 대상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석문)은 지난 30일 "부모와 자녀가 꿈으로 소통하는 '진로&학습 부모자녀 캠프'를 백양사 관광호텔에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정읍 관내 중3 으뜸인재학생과 학부모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성 백양사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는 명문대 대학생에게 학습법과 학생부종합전형 대비법 등을 배웠고, 학부모는 자녀와의 소통법, 변화하는 대학제도

분석과 성공인식전략 등의 특강을 통해 진지하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 미래의 대학 학과와 직업을 도출해 볼 수 있는 학교계열선정검사를 바탕으로 자녀의 미래 직업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평소 아이에게 맡겨내기가 부담스러웠던 직업 진로에 대해 자연스럽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정읍=백기섭기자 parkks@

순창 옹기체험관 개관... 체험·판매장 구성

순창군은 지난 30일 "사라지는 옹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옹기체험관을 건립하고 28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체험관은 8억원이 투입돼 순창읍내 장류박물관 인근의 부지 5천494㎡에 지상 2층, 건물 전체면적 654㎡ 규모로 세워졌다. 옹기 체험장과 옹기 공방, 전시

판매장을 갖추고 옹기 핸드페인팅, 물레 체험, 도예 아카데미, 다도 예절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순창군은 이 시설을 인근의 장류체험관, 고추장 민속마을과 연계해 관광단지화할 계획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망 양호, 매4억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동 교통편리, 매7억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대지 및 전 1,733㎡ 슬라브주택 교통편리, 매9천만

농지 / 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6,600㎡ 주택 2차선 도로변 및 4차선 국도점, 매10억
-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답 6,605㎡ 도로양호, 전으로 사용가능, 매1억 4천만
- ▶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전 25,120㎡ 2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투자유망 매5억
- ▶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전(지목상 임야) 20,495㎡ 영농조건 양호, 임대수익 양호, 투자유망, 매3억 7천만
-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 7,547㎡, 2차선 도로변, 매3억 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월신리 답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답 13,530㎡, 면 소재지, 매3억
-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30억
- ▶ 영암군 금정면 인로리 대봉김나무 과수원, 고소득 가능, 매4억
- ▶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전 6,600㎡ 4차선 도로변, 계획 관리지역, 매2억 9천만
-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투자유망, 매17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 010-9510-1150, 061) 333-1150

★4성급★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한국김영명 강경가 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 매매가려 상담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망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868-5151

땅 매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3억 6천만원
(중개 수수료 없음)

주인직매 010-8676-1900